

지역 소식통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인상·대상자 확대

고창군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훈 수당을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5·18민주유공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분인과 유가족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호국보훈수당을 내년 1월부터 9만원(기존 7만원)으로 인상해 매월 25일 지급한다.

조례 개정에 따라 신규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호국보훈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5·18 민주유공자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챙겨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올해 경로 이·미용
지원 대상 만 75세 이상

고창군이 올해 경로 이·미용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만 80세 이상 어르신에서 만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한다.

경로 이·미용비 지원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고창군에 거주하시는 만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피부유지와 자존감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경로 이·미용비는 연 1회 고창사랑상품권(경로 이·미용 전용) 6만원을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하며, 관내 이·미용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고창군은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2022년엔 올해보다 5,200명 늘어난 12,000명의 어르신들에게 이·미용비를 지원해 드릴 전망이다.

고창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이·미용비는 지원해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청결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

정읍시, 임인년 시무식 열고 새해 힘찬 출발

정읍시는 3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2022년 임인년(壬寅年) 시무식을 열고 힘찬 새해의 출발을 알렸다.

이날 진행된 시무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열렸다.

시무식은 유진섭 시장과 간부 공무원의 총환담 참배 이후, 실과소·읍면동장 주무·총무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 시장의 신년사 발표, 공직자의 결의 다짐 순으로 진행됐다.

유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로 고생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임인년 새해에도 아낌



없는 애정과 성원을 당부했다. 또한 올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펼쳐지는 해로 그 어느 때보다 공직자의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를 치르는 데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해에도 친절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시민 모두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는 민선 7기 마무리와 함께 민선 8기가 시작되는 중차대한 시기로서 민선 7기 중요 핵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유 시장은 지난 1일 2022년 새해를 맞아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와 환경 관리원 소망 공무원, 정읍역 역무원 등 새해를 여는 시민들을 격려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자원순환사회 민·관 공동 선언’ 선포

고창군, 임인년 새해 시무식

전북 고창군이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선포했다.

3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자원순환사회 선포식을 겸한 2022년 시무식을 열었다. 시무식에는 고창군 공무원과 고창군의회, 고창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 7개 고창군 환경단체 등이 참석했다.

고창군 군의회, 군민대표가 서명한 선언문에선 ▲폐기물 발생 억제 ▲지속가능한 생태적 전환 노력 ▲쓰레기 없는 사회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지역 7개 환경단체는 자원순환사회 실천결의문을 낭독했다. 단체는 “장바구니 사용, 아이스팩 재활용 등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Reduce), 한 번 더 사용하(Reuse), 올바르게 재활용



전북 고창군이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선포했다.

하는(Recycle) 자원순환을 널리 퍼뜨려 함께 실천하자”고 호소했다. 고창군은 이날 중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고창군 자원순환정

책실천위원회’를 꾸리고, 민간단체와의 지속적인 MOU 체결 등을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유진섭 정읍시장 언론인 간담회, 지역발전에 대한 의견 나뉜

유진섭 정읍시장이 신년을 맞아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차담(茶談)을 겸한 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지역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기대와 포부를 안고 희망찬 임인년(壬寅年) 호랑이해를 맞이했다”며 “우직하고 용맹한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올해는 어려움을 딛고 힘차게 뻗어나가는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새해 덕담과 함께 지난 한 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

전을 위해 정읍시가 추진한 정책과 주요 성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유 시장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이 유례없는 위기를 맞게 됐지만 시민들과 공직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한 해 전북 최초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과 상생 국



민지원금 지급, 비대면 선별진료소 신속 등 선제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위기를 돌파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가 환경관리원으로 갑작 변신해 3일 새벽에 환경관리원과 쓰레기를 수거작업하면서 애로사항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환경관리원의 작업환경 개선”

권익현 부안군수, 2022년 새해 새벽청소 소통행보

권익현 부안군수가 환경관리원으로 갑작 변신해 3일 새벽에 환경관리원과 쓰레기를 수거작업하면서 애로사항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새벽 6시 권익현 군수와 최연군 산업건설국장은 환경관리원들과 함께 청소차량을 타고 부안을 시가지 일대를 돌며 각 가정과 시장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직접 청소차량에 옮겨 실은 작업을 했다.

쓰레기 수거 후에는 환경관리원 및

청소차량 운전원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며 애로사항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다.

권익현 군수는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면서 환경관리원들의 고충을 다시 한번 공감하게 됐고 쾌적한 부안을 만드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연차적으로 저상용 차량 도입과 기동 인력 배치 등 환경관리원의 작업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예산1조원 시대 연대·협력 강화

권익현 부안군수가 3일 청내 방송으로 실시한 2022년 비대면 시무식에서 예산 1조원 시대 개막을 위한 연대·협력 등 개방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민선7기는 그동안 자율과 창의를 촉매제로 조직문화의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 왔다”며 “지난해 국가예산 역대 최고액 5760억원 확보, 3년 연속 국가예산 5000억원 달성, 민간유자 1조원 시대 개막, 노을대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위기 속에서도 얻어낸 성과들이 그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2022년은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으로 화려한 비상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비전과 전략들이 완성도를 입히고 속도를 내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무엇보다 부안의 옛 명성을 되찾고 지역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 5만 사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권익현 군수는 ‘예산 1조원 시대 개막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 민간 자본 유치 등 연대와 협력하는 개방 생태계로 지속가능한 진화를 해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미래 100년 먹거리 신성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산업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수소연료전지 분야의 창업 지원과 기업유치를 통해 수소 기업 집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쾌곡된 농산물 유통구조를 바로 잡고 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부안형 푸드클러스터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성공적인 퀘도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현 군수는 이날 시무식에서 앞서 새벽 6시부터 환경관리원들과 함께 새벽청소를 하면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부안군의회를 방문해 신년 인사를 하고 서립공원 총환담을 참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maeil.com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